

지역 인구 유출 방지 플랫폼 조성

LX·공공기관·고창군·전북대·공공상생연대기금 등 청년 창업 미중물 '고창청년함께성장센터' 조성 협약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공사)를 비롯한 전북에 위치한 공공기관, 고창군 전북대, 공공상생연대기금 등 민·공·관이 고창청년함께성장센터(이하 고창청년함께성장센터)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왼편기상8면)

LX공사는 전북지역 공공기관 6곳, 고창군 전북대, 공공상생연대기금 등 9개 기관과 함께 2일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고창청년함께성장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창청년함께성장센터는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사회공헌사업을 모아 지역사회의 핵심 현안인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이다. 이 사업은 공

공상생연대기금의 '제3회 사회적기회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연대사업 공모전'에 선정돼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귀농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청년인구 유출이 심한 고창지역 청년들을 위해 폐쇄 위기에 몰린 공간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창업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전북대 고창캠퍼스 본관 3층(연면적 526㎡)에 창업사무실, 전산교육장, 세미나실,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구성된 고창청년함께성장센터는 이곳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주도할 지역활동(가르침·코디에이터)들을 배출하게 된다.



김기승 LX공사 부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해 유기상 고창군수 등 참석자들이 고창 청년함께성장센터 조성 협약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개 공공기관들은 청년들과 고창지역을 활성화하는 혁신 창업시대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김기승 부사장은 "민·공·관이 함께 구축한 고창청년함께성장센터라는 마

중물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도전과 실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농·소·연 고객 모시기 챌린지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본부장 장기요)는 2일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실시하는 '농·소·연 고객 모시기 챌린지'의 일환으로 우석대학교를 방문해 남찬현 총장에게 감사의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농·소·연 고객 모시기 챌린지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협은행에서 실시하는 이벤트로, 농협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 고객을 찾아가 화해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꽃바구니 또는 꽃다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다.

우석대학교는 개교 42주년을 맞은 도내 유수의 대학으로 이날 장기요 본부장과 남찬현 총장은 지역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기요 본부장은 "농협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농협을 사랑해주시는 고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농협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일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익산의 '역전 할머니 맥주' 본사를 방문하고 대표 및 가맹점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력을 위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취임 후 첫 지역 행보는 전북에서

권철승 중기부장관, 1박 2일 일정으로... 화상회의실 개소식 참여 전북대상점가·익산 역전 할머니 맥주 등 찾아 현장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권철승 장관(이하 권 장관)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지역을 방문했다.

취임 이후 첫 '지역 행보'인 이번 방문에서 권 장관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우선 권 장관은 1일 오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위치한 '혁신형 공동화합 화상회의실' 개소식에 참여했

다. 개소식에서 권 장관은 "전북 확장형 화상회의실 개소를 통해 지역기업들에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기업들이 시공간 제약을 넘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일에는 전북대상점가에서 '착한 임대인'들과 만났다. 권 장관은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민간에서의 자발적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북대 상점가 내의 스마트상점 방문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현장을 점검

한 후, '백년가게'인 '한일관'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과 오찬을 가지면서 전북지역 중소·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어진 일정에서 권 장관은 상생협력을 실천 중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주)비씨(전주)를 방문해 성과 공유 등 직원과의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어 전북 익산으로 이동해 '역전 할머니 맥주' 본사를 방문하고 대표 및 가맹점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력을 위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권철승 장관은 "그동안 프랜차이즈 산업은 상생협력보다는 불공정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산림다중 이용시설 방역 강화

서부지방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에 맞춰 산림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역 관리 및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남원 중기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제정에 감사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중앙회 서한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승찬)는 2일 남원시청에서 이환주 남원시장, 윤기환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에게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감사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체정목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전북북서세미콘사업협동조합 김중오 이사장,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 이덕경 이사장, 전북남원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전재완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지난 5월 4일 남원시 의회 윤기환 의

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조성 노력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관료와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필요경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제정했다.

이에 대해 체정목 전북중소기업회장은 "금번의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에 준 관심과 노력에 감사한다"며 "남원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지

역경제 활성화의 청병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서한의 내용을 전하고, "앞으로 도내 14개 기초지자체에 동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와 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내 공동사업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미중물 역량의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조례 후속조치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김윤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지역별 우수 농식품 '실시간 소통 판매' 지원

내일 '네이버 쇼핑라이브' 서 첫 선 9월까지 8개 농업경영체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기반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네이버와 협업해 지역별 소규모 농업경영체의 우수 농식품 판촉(마케팅)을 지원한다.

판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8개 농업경영체는 각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추천한 곳으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상품화하고 있다.

이번 실시간 소통 판매는 각 수확한 지역 농산물을 이를 활용한 가공 상품을 함께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첫 실시간 소통판매는 4일 오후 2시부터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약 60분간 진행되며, 오는 9월 10일까지 격주로 만나 볼 수 있다. 첫 회에는 국내 1호 친환경 산발기 제배인증(2006)을 받은 경남 김해의 최석용 농업인이 생산한 제철 산발기와 제조 특화를 확정한 산발기 와인·식초·잼 등이 소개 된다.

앞으로 농진청과 네이버는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 농·특

산물을 알리고, 판로확보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농진청은 이번에 추진하는 실시간 소통 판매에 앞서 판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경영체 관계자에게 상품 홍보와 판매, 판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현장 기술 지도를 진행했다. 또한 농업경영체가 유명 영향력자(인플루언서)를 상호 연결해 상품 인지도 향상을 지원하고, 상품 특징을 반영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 중이다.

농진청은 실시간 소통 판매 이후에는 소비자 반응 및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각 농업경영체에 대해 제공하고, 경영체가 자체적으로 실시간 소통 판매를 운영·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과 박정화 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대면 소비환경에 맞춰 농업인들의 판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 및 판로확보 지원 등 지속적인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2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 사업추진 우수사무소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동진강낙농축협과 동김제농협은 1,000억원, 동계농협은 500억원의 건전여신 추진으로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 수상

동진강낙농축협·동김제농협·동계농협 등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 사업추진 우수 사무소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동진강낙농축협(조합장 김투호)과 동김제농협(조합장 최진오)은 1,000억원, 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은 500억원의 건전여신 추진으로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은 지역농축협의 건전경영과 내실있는 성장을 유

도하기 위한 상으로 500억원, 1,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7,000억원, 1조원 달성 시 수여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호금융 대출규제 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여신추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뤄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정재호 본부장은 "상호금융 성장을 바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대표 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도내 식품산업 고용안정 일자리 발굴

바이오인진흥원, 농생명·식품산업 고용전략위원회 개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김동수 원장)은 지난날 28일 전북 식품산업 고용안정화를 위한 고용전략위원회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진행된 이날 고용전략위원회는 전북 식품산업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전북 식품산업 고용안정을 위한 일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인자위,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북문헌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한평네

이처럼 참고 등 일자리 발굴 및 고용안정을 위해 참여했다.

특히 식품가업들의 교육 수요와 그 밖의 고용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학연관 채용연계 시스템 구축 논의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네트워킹을 주관하는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본부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과 더불어 고용지원, 전북도, 대학 및 기업현장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